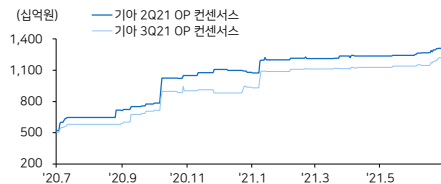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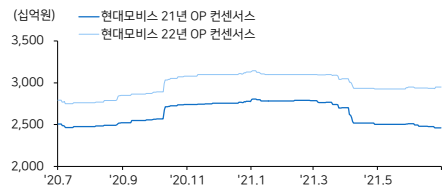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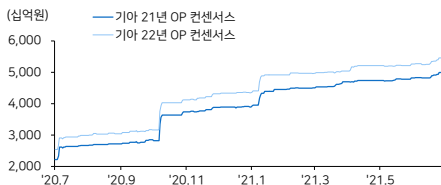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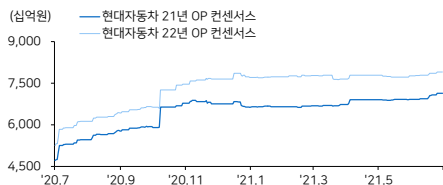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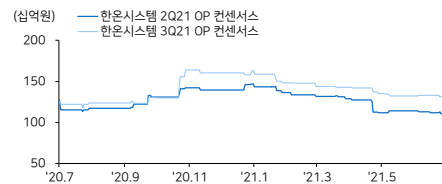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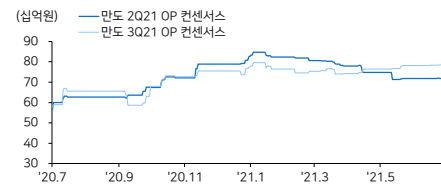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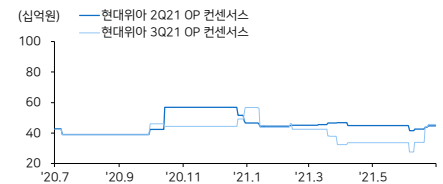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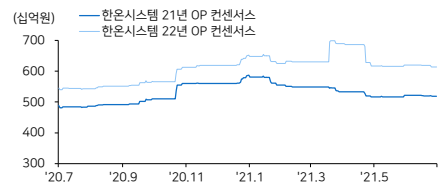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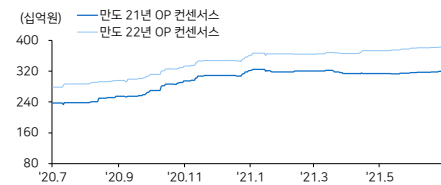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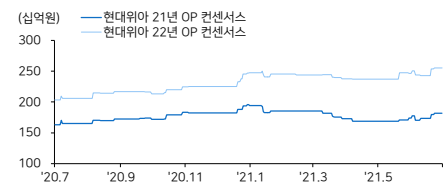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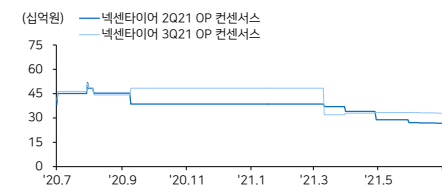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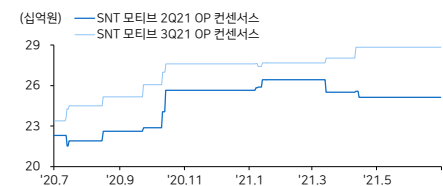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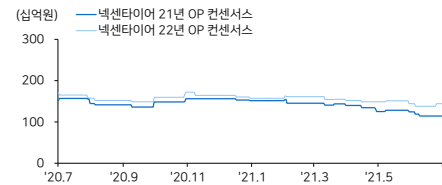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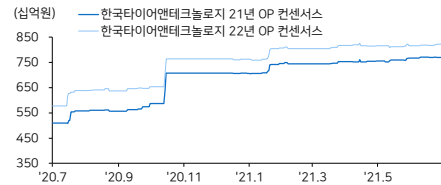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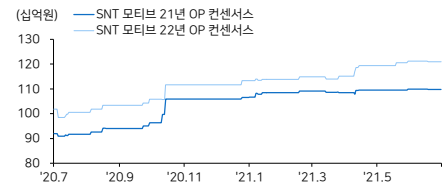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그룹의 앞서가는 메타버스 활용법... '르생세'는 구경만 (뉴스 저널리즘)

자동차업체들 중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업체는 현대차그룹이 유일. 네이버 제페토 플랫폼을 활용해 시승경험을 제공하고, VR을 활용해 자동차 생산 프로세스를 운용함. 자동차 개발 과정을 혁신할 수 있는 '버추얼 개발 프로세스'도 가동 중. <https://bit.ly/3Bledso>

아이오닉5보다 세다... 'GV60'에만 있다는 비장의 기술 (이데일리)

제네시스 GV60의 출시는 3분기에 예정됨. 이달 초 먼저 출시된 세단 형태 G80e와 달리 GV60은 SUV 형태로 출시 예정. 양산 계획은 8월 중으로 잡혀 있으며, 올해 생산 목표는 2만대 이상. 양산차 최초로 순수 전기차용 '무선충전 기술'도 선보일 것. <https://bit.ly/2UPC20t>

엔택트 소비가 대세... 수천만원 자동차도 '클럽 구매' (이뉴스투데이)

코로나19 정국하로 엔택트 소비가 활성화되고 전시장 판매 활동이 위축된 자동차업체에 '온라인 판매'가 강력한 대안이 될 전망. TESLA는 100% 온라인으로 판매 중이며, BMW와 벤츠 등도 예약부터 인도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한 플랫폼을 준비. <https://bit.ly/370kVfI>

르네사스, 차량용 반도체 출하량 끌어올렸다... '화재 전 수조 회복' (이데일리)

26일 파견계약자(닛케이)에 따르면 르네사스 나카 공장에서 출하되는 반도체 부품량이 가동을 멈추기 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닛케이에는 '상장된 속도대로 정상화에 도달하고 있다'고 평가. <https://bit.ly/3y6cBqo>

"1회 충전 주행거리 482km" 현대차, 내년 출시될 '아이오닉6' 일부 사양 공개 (오토데일리)

현대자동차가 내년 하반기 선보일 '아이오닉6'의 스파이샷과 일부 사양이 공개됨. E-GMP를 기반으로 제작되며, 73kWh 용량의 배터리로 1회 충전시 300마일(약 482km) 주행 가능. 단일 전기모터 최고출력은 218마력. <https://bit.ly/3i6AdWm>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캘리포니아 도로 달린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공기관과 손을 잡고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현지에서 운행하기로 함. 2023년 2분기부터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 엑시언트 트럭 30대를 배치하고 오를랜드에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 <https://bit.ly/3BHVMha>

대한민국 부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는? (매일경제)

팬데믹 상황에 비대면과 차박 등 새로운 트렌드와 차량 구매 패턴이 결을 같이 하며 SUV에 대한 선호도 상승. 또한 국산차의 성능이 좋아지며 가격도 높아져 소비자의 수입차 구매 심리를 부추겨 수입차 판매가 성장함. <https://bit.ly/2WmwOu0>

폭스바겐, 전동화와 내연기관 공존 착수 (오토타임즈)

폭스바겐은 질소산화물을 줄인 디젤 엔진 'EA288 예보'를 선보임. 4기통 2.0L급에 트윈도징 테크놀로지 기술을 적용해 친 환경성을 끌어올린 결과 2025년 발효 예정인 유로7 배출가스 규제를 4년이나 앞당겨 충족 가능. <https://bit.ly/2UlaUk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